



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버님 공항 모셔다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아버님 댁으로 올라갔다. 현관에 들어서기 전 마침 창 문 안으로 아버님의 모습이 보였다.

작은 벽 거울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매고 계시는 모습. 문득 이 평범한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느껴지는지...



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예배 때 마다, 심방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저렇게 작은 거울 앞에서 단정히 넥타이를 매셨을 텐데 이제 칠순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항상 하시던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계신 것이다.

나는 과연 아버님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게 묵묵히 내 길을 가고 있는가?

어린 시절, 특히 중, 고등학교의 사춘기, 반항과 방황의 시절 아버님은 내게 너무나도 왜소하고 무력한 모습이셨다. 반 지하 10평 정도의 조그만 방 2개짜리 전세방을 전전할 때나 매서운 겨울 추위 중에 적합한 집을 구하지 못 해 콘크리트 찬 바닥, 그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건물 한 칸에 야전침대를 놓고 생활한 적도 있었다. 그 때 아버님은 세상의 거세고 모진 현실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힘들어 하셨던 것 같다.

세상살이에서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졌던 아버지가 십자가 앞에서는 당당하고도 큰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수요 밤 예배에서였다.

작은 개척교회의 수요 밤 예배라는 것이 겨우 교인 10여명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때도 아버님은 그 큰 키에 양복을 단정히 입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다.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그럴듯이 강대상 뒤 벽에 나무 십자가가 갑자기 부각 되면서 “아! 아버님의 뒤에는 십자가가 있구나!” 라는 탄성이 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왔다.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아버님, 그 모습은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었다. 하나님의 쓰임 받는 큰 사람 이었던 것이다

지금도 나는 타의에 의한 예배,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부정적이다. 하지만 절대로 내 아이들에게 자기의지로 원하지 않은 한, 예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스운 신앙의 아이러니인가? 하나님의 뜻을, 그 섭리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? 지금도 변함없이 일평생 해 오신 그대로 넥타이를 매시는 아버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내 길을 갈 일이다.

그래서 먼 훗날 나의 자녀들이 그 어떤 나의 일관성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나 또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(히4:12-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10권 39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8년 9월28일
☎ 369-5077. Howe St. City(Ak Girls Grammar School Hall)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다섯 손가락의 기도

김상길



“엄마, 기도는 어떻게 해요?” 라고 꼬마가 묻자 지혜로운 엄마는 다섯 손가락을 보여주며 “기도는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는 것” 이라고 가르쳐 주었다.

- ①엄지손가락: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손가락.
*자신을 포함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.
가족 친구 이웃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.

- ②집게손가락:무엇을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.
*선생님 경찰관 법조인 향해사들을 위한 기도. 미래의 방향을 위해 하는 기도.

- ③가운뎃손가락:가장 긴 손가락.
*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지도자, 어른과 윗사람들을 위한 기도. 또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.

- ④약손가락:가장 힘이 없는 손가락.
*병들어 있거나 슬픈 일을 당해 힘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.

- ⑤새끼손가락:가장 작은 손가락.
*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, 장애인이나 불우 노인들을 위한 기도. 막내동생이나 어린아이를 위한 기도.

◀말씀 따라 행하기▶
주님이 하시는 일은
우리가
기다렸던 시간 길이만큼
중요하다

◀인품 따라 행하기▶
행복이란
우리 집 화롯가에서 성장한다
그것을 남의 집 뜰에서
따와서는 안 된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

묵도와 참회의 기도 Pray & Confession	갈보리	다 갈 이
*찬 송 Hymn	23장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찬 송 Hymn	234장	
기 도 Pray		이규임 권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요나 3:1-10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한 번 그리고 두 번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55장	다 갈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응 답 송 Response Song	여기에 모인 우리	다 갈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\$ 1040 총액:\$ 449,420.74

갈보리 성경 100독: 42독 김숙현 집사

◆10월 예배위원◆

일자	주일기도	수요기도	특송	주차안내	안 내
5	임병숙	정혜숙		최현철 황존직	노은숙 추미선
12	고대아	조병희			노은숙 백제성
19	안정실	최광암			
26	유승재	황경임			
2/11	정덕수	강동호			

◆10월 교회력◆

	주일 & 예배	모 임
5	안영로 목사 방문설교 (증경총회장)	바울헌신(1)구역 예배(10)학생부수 련회(10-12)
19		구역예배(24)
26		선교회월례회

『2008 신앙생활』 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	『교 회 등 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오후 1시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0 청년부: 토요 6:00 pm

- 교우소식
*이태한 목사: 가족행사관계로 한국방문
- 모임: *당회, 예배 후 *권사모임: Tea Time 시간
- 바울남선교회 헌신예배 <일시> 1일 수요예배 저녁 7:30분
*설교: 김일만 목사(밀알선교회)
- 다음주 음식바자회를 위한 요청: 교회 그릇(Bowl)을 보관중인 교우께서는 연락을 기다립니다
*루디아여선교회(총무: 박수현 집사 ☎ 528-0866)
- 예배부: 여러 습득물들을 입구에 두었습니다(문의: 이동술, 현석호 집사)
- 목사안수식: 김창식 전도사.
<일시> 9월 29일(월) 저녁 7:30분 <장소> St David's Church
<주관> 미주한인장로회 뉴질랜드 노회
- 학생부 수련회(예고): 질풍노도 시기의 우리 자녀들, 신앙으로 저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수놓아 갑니다.
<일시> 10월 10일-12일 <장소> Karanga Camp, Waitakere
- 크리스찬신문지령 100호기념 교회연합 성가합창제
<일시> 10월 4일(토) 저녁 7시 <장소> 우리교회당
*9개 교회로 담아낸 하나님 찬양 메아리로 우리 가슴을 적시는 토요일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*우리교회가 제일 먼저 발표합니다(7시). 일찍 오셔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이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



◀그림 말씀▶ 거절치 못하는 주님의 사랑
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
단지 옷자락을 만짐에도 능력을 내었듯이,
우리의 아이 같은 믿음도
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함만 가진다면
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며
누가 그 능력을 내었는지 찾으실 것입니다.

◀한 줄로도 긴 생각▶

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진 Daylight Saving Time
내 생명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해 주는 것과는 무관한 시간

- 김 목사 -